

SOCIETY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악성 민원 꼼짜마”...공무원 보호장비 확대한다

‘KBS 전국노래자랑’ 복구편 29일 동강대 운동장서 진행

광주 복구에서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 4일 복구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복구편’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주민에게 화합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복구의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노래자랑 접수는 기성 가수를 제외한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300팀을 모집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27일 오후 1시부터 복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예심을 거쳐 15팀 내외의 본선 참가팀을 선발한다. 본선 녹화는 오는 29일 동강대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동강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본선 녹화 당일에는 MC 남희석의 재치 있는 진행에 더해 신유, 손태진, 원크, 문연주, 이은하 등 초대가수가 출연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구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lalad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분방송은 오는 5월 중 KBS 1TV에서 방영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100대 추가 배치 안전한 공직 근무환경·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기대

지난해 광주 서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감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인 A씨는 향해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민원인을 체포했고, 직원들은 당시 상황이 녹음·녹화된 휴대용 보호장비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민원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지난해 2023년 9월께 공사 현장에서 소음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 C씨는 민원인들이 강제로 가두는 일이 발생했다. ‘법적 지위 이내’라는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갖자 감금한 것이다. 두려움을 느낀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민원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한동안 정신적

인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에게는 휴대용 보호장비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 서구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4일 서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를 포함해 각 자치구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추가 휴대용 보호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서구가 제도 도입 이후 마련한

보호장비는 지난해 기준 38대에 그쳤다. 여기에 보호 장비는 구형 민원실에만 집중되고 민원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대씩만 배부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방문상담 등을 하는 대민업무 수행 부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서구에서는 100여건의 악성 민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67건), 협박(3건), 폭행(2건), 기타(32건) 등으로 다양하게 반복됐다. 이에 서구는 올해 휴대용 보호장비 100여대를 추가, 총 138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특이민원 대응 체계 구축,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강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장비는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접점부서를 위주로 운영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민원인을 위해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초등 신입생,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하세요”

전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4일부터 ‘전남 학생교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전남 모든 초등학교에 매일 10만원씩 지급되는 정책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경제력 사교육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학년도 전남 소재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며, 보호자가 전남도교육청 누리집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바우처 카드(전남 공실 공생 카드)로 지급되며, 수당을 신청한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 3~5일 이내에 우편으로 지정된 장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수당은 연도 내 누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2025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남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위해 콜센터(061-260-0266, 0267)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투표소 설치 작업 분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4일 광주 동구 아이플러스 광주 컨퍼런스룸에 마련된 동등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사람과 도시

크고도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음 주교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빛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방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 울타리

581등급 보도용 방호 울타리(상차위부) 기초공사가 필요 없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울타리 경용(거중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빛물 저류 침투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공극률 95% 이상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www.hngoad.co.kr (주)한길산업

본 사 1(광주) 전남 광평군 화교면 화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1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휴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

“국어는 선생님과 1대 1, 체육은 형·누나와..”

광주 동구 중앙초등학교 입학식...신입생 1명 뿐

2000년 들어 학령인구 감소·도심 공동화 직격탄

신입생이 단 1명에 불과한 동구 중앙초등학교 입학식이 4일 오전 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단촐하게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 A군과 A군의 부모, 이 학교 배창호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혼자 입학하는 A군을 격려하기 위해 A군 조부모의 응원 영상도 소개되며 ‘1인 입학식’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중앙초에는 지난해 3명이 입학했지만, 올해는 A군 한 명만 입학했다. A군과 함께 중앙초에 취학 예정이었던 2명이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가면서 결국 A군 혼자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A군의 누나가 이 학교 6학년 이어서 등교를 함께한다. A군은 국어 등 필수과목 수업은 선생님과 1대 1로 하고, 예체능 수업은 2학년 형·누나들과 함께한다. 1907년 문을 연 중앙초는 전교생이 23명으로 교사는 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올해부터 전교생 30명 이하인 학교에는 교장을 배치할 수 없어 교사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중앙초 학생 수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광주 최대 변화기였던 금남로 인근에 있어 1970~1980년대에는 학급수 90여개, 학생 수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학교였지만 2000년대 들

어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에 직격탄을 맞았다. 광주 외곽지대에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학교 인근 옛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급격한 공동화 현상을 겪었고 중앙초 등 옛도심 학교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학교 측은 학교 존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급하는 입학지원금에 더해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창회의 도움을 받아 장학금 마련에도 나섰다. 배창호 교장은 “신입생을 늘리는 것은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가능한 일”이라며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 서구, 주민과 ‘감(減)탄도시’ 실현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광주 서구가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기반으로 ‘감(減)탄도시 서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4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시 탄소중립 실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면서 확보한 성과금 2500만 원을 LED 교체, 태양광 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투입한다. 또 오는 5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서구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한다. 더불어 5년 단위의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2026~2030년)을 수립해 폭염과 홍수,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영향요인 분석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시

스텝을 마련한다. 서구는 이 밖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감(減)탄천사 생활실천단’을 모집 중이다. 참여자들은 텀블러 이용, 재활용 분리배출,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 후 인증하는 ‘감탄생활 실천챌린지’를 진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훈호 기후환경과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다”며 “2045 탄소중립도시 서구를 실현하는데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해 효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만물이 겨울잠 깨는 ‘경침’

오늘 아침 최저 0~4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침(驚蟄)인 5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5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4도, 낮 최고기온은 8~11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 9~12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4일 오후 1시 기준 여수, 순천, 광양, 해남, 보성, 고흥, 강진, 장흥, 완도, 진도, 흑산도 등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서해남부면바다와 남해 서부면바다는 5일까지 30~70km/h(8~20%)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